**케빈 E. 프레데릭 박사, 발덴시아인, 강의 2,   
목적의 종합, 아놀드주의자들**

© 2024 Kevin Frederick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왈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목적의 종합, 아놀드주의자입니다.   
  
이 설교는 목적의 종합이라는 제목이며 피터 왈도의 추종자들의 왈도파 운동과 브레시아의 아놀드라는 사람의 추종자였던 다른 종파 사이의 연관성을 그립니다.

이것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을 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의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의 개종을 보고했고 모든 신자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신자들은 일어나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기에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제자들의 목에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메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도리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줄을 믿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과 같으니라 온 회중이 잠잠히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를 전하는 것을 들으니라.

그들이 말을 마친 후, 야고보는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호의적으로 여기셔서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취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거처를 다시 짓고, 다시 짓고, 세워서 모든 다른 민족이 여호와를 보게 하리라. 곧 내 이름이 일컬어지는 모든 이방인이 여호와를 보게 하리라. 이는 오래 전부터 이 일들을 알려 온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졸려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 여러 세대에 걸쳐 모든 도시에서 모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큰 소리로 읽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배경 인용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장 폭압적인 측면에서 봉건 제도는 12세기 말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패, 교회와 평민이 연합하여 봉건 제도에 대항하여 벌인 싸움, 수도원주의의 성장, 유럽의 귀족의 꽃을 죽이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십자군, 사람들과 도시 생활의 중앙 집권화, 상업의 성장, 공화주의 도시의 민주주의 정신, 봉건 및 교회 권위에 대항하는 평민과 그 대표자들의 싸움, 로마 제국 시대 이후로 쇠퇴한 도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통하고, 무엇보다도 학자들만 사용하던 라틴어를 대체하기 위해 민중의 언어인 속어를 채택한 것이 당시의 사회적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엔리코 산토리얼 이라는 사람이 쓴 발도파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행 15:11).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의견과 해석의 신학적 차이에 대한 분쟁은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할례 의식의 역할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남성 할례의 물리적 표징이 필수적인 언약 행위이자 남성 유대인 신자를 표시하는 표징이었으며, 이방인 개종자나 나중에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유대교 혼합 신앙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필수적인 행동이었다고 믿습니다. 할례의 역할에 대해 논쟁하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대안적 해석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서 두 명의 초기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이 출생이나 할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라는 유대인의 언약적 관행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신학적 본질을 추출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추론을 경청하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언적 음성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큰 논쟁의 시간이 지난 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신체의 할례가 기독교 제자도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정당화는 제자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필수 요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소수의 추종자들은 이 사건 이후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재개했고, 잠재적인 신학적 갈등이 해소되었으며, 베드로가 이끈 유대인 기독교 개종자들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연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70년대 후반에 왈도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 또는 레온에서 가난한 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상 설교, 특히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은 것을 근거로, 그들은 레온의 가난한 사람들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레온 주교가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거부하자, 왈도는 1179년에 교황 알렉산더 3세에게 대중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왈도의 겸손과 헌신에 감동했지만, 주교와 그들의 지리적 관할권에 위임하여 사례별로 주어진 커뮤니티 내에서 설교할 권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레온 주교는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설교할 권리를 금지했는데, 12세기 후반 교회에서는 설교가 주교의 전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 사제의 임무는 지역 교구의 일곱 가지 성사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지 않고 그 성사를 집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 당시 평신도들이 설교를 듣는 일은 드물었고, 그때조차도 라틴어로만 선포되었습니다.

설교의 선포는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의 직책이 엄격히 보호받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제한은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1184년 레온의 가난한 사람들은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교황 루시우스 3세에 의해 파문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관행을 따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1180년대 후반에 Waldo와 그의 여행 동반자는 밀라노 남쪽의 롬바르드 지역에서 기독교 종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지만, Arnoldisti 라고도 불렸습니다.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발도파가 창설되기 40년 전부터 있었으며, 브레시아의 Arnold라는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Enrico Sartorio는 Arnold에 대해 롬바르디아 에서 예언적 열정으로 사도적 순수함과 삶 속의 빈곤으로의 복귀를 설교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

그 남자는 피터 아벨라르의 제자였던 브레시아의 아놀드였는데, 그는 스승으로서 신학적 신념을 형식적으로 토론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스승의 논리적인 종교적 결론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마음과 정신으로 진실을 느낀 행동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정화하는 민주적 정신이 지배하는 삶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12세기 유럽의 로마 가톨릭 주교들의 비교적 호사스러운 생활 때문에 주교들은 점점 더 부를 축적하고 성을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교회에 반대하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피터 아벨라르드와 함께 공부한 후 로마 교회의 수도사였던 아놀드는 로마의 위계에 부를 포기하고 교회 자체의 땅을 도시 국가에 돌려주어 교회와 지도자들을 부의 부패한 힘으로부터 해방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놀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순수한 형태의 제자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레시아의 아놀드의 불타는 말은 정치적 노선에 따른 민주적 개혁을 시도하고 종교적 노선에 따른 도덕적 개혁을 도입하려는 그의 노력에 기꺼이 그를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놀드는 재산을 소유한 성직자는 성례 의식을 거행할 권한이 없다는 급진적인 믿음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결국 발도파에서 도나티즘의 신학적 입장으로 발전했습니다. 도나티즘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안수받은 교회 관리들이 집전한 거룩한 성례는 사실상 효과가 없으며 부도덕한 가톨릭 성직자가 집전하는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영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아놀드의 믿음은 롬바르디아 지역의 공동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한 아놀드는 교회에서 이단자로 낙인찍혀 1155년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의 힘은 계속 살아 있었고, 그는 1180년대에 월도와 그의 여행 동반자가 우연히 그들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번창하고 있던 상당하고 잘 조직된 추종자 집단을 남겼습니다. 아놀드주의자들의 주된 신념은 기본적인 빈곤 상태에서 순수한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두세 가족으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를 조직했으며, 각 공동체의 수장은 장로였다. 장로와 그들의 공동체는 밀라노에 거주하며 그 지역의 작은 공동체 집단을 통치하는 감독관, 즉 주교의 감독을 받았다. 밀라노의 롬바르디아에는 각 공동체 집단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받는 신학교가 있었다.

그들의 종교적 지도는 신약성서에 국한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모국어로 읽고 매우 자주 암기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종교적 교육은 이러한 공동체 집단 내에서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과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서로에게서 가난과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삶을 받아들인 동류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그룹의 초창기에 그들은 가톨릭 사제와 주교들에게 가난한 삶을 의식적으로 수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충실한 사도가 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과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특히 왈도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순회 설교자로 봉사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왈도의 추종자들은 가난 속에서도 설교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품을 받았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한 예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월도는 설교하라는 부름이 그의 추종자들의 유일한 활동으로 남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의 추종자가 된 사람들에게 다른 직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음식, 옷, 주거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중의 관대함에 의존했고 설교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무역이나 직업에 종사했고,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 그들의 수입을 관대하게 나누었으며, 그로 인해 개인 재산에 대한 덜 강력한 반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놀드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대로 공동체에서 제자도의 전반적인 윤리와 원칙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순회 설교자로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리적으로 더 고정된 공동체의 집합으로 구성되었고, 소규모 가족 집단으로 조직되었으며, 각 가족 구성원에게 종교 및 성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뭉쳤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강조에서 롬바르드 빈민이 운영하는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리옹의 빈민과 마찬가지로 롬바르디아의 빈민은 추종자들이 일상 생활에 적용할 때 성경의 윤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놀드파는 자급자족해야 했으며, 기독교 원칙과 각 지역 사회 구성원의 노동을 공동체 집단을 지원하는 데 적용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놀드파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발견되는 공동생활의 모토와 윤리에 초점을 맞춘 반면, 왈도의 추종자들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의 부르심에 그들의 사역을 집중시켰습니다. 영적 훈련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문제는 두 그룹 간의 주요 의견 불일치 사항이었고,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에서 하는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육체 노동의 문제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월도의 순수한 유산과 롬바르드족이 다양한 환경과 영향에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적응한 것 사이의 많은 긴장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월도의 추종자와 아놀드의 추종자 간의 합병에는 신중한 연구와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9가지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발생했고, 각 그룹의 6명의 대표가 모여 차이점을 해결하고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1218년, 12명의 대표단은 밀라노 근처의 베르가모 마을에서 며칠 동안 만나서 의견 차이를 해결했습니다. 그 9가지 의견 차이 중 7가지는 다음 질문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후 베르가모 공의회라고 알려진 행사에서 Rescriptum 이라는 문서에서 그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 첫째, 이 운동 내에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까요? 피에몬테 사람들은 내부에서 지도자를 선출하여 그를 주교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발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만이 이 운동의 지도자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뽑은 지도자들은 성직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할까요? 두 그룹 모두에서 운동의 지도자나 설교자가 될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교육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순회 설교자를 임명하지 않은 롬바르드 지역의 피에몬테 노동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운동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발데스 자신은 타협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요 역할에 대한 그의 주장을 강조했지만, 1206년이나 1207년경에 그의 죽음 이후 이 입장은 적당히 바뀌었습니다.

우연히도, 3세대 안에, 이 운동 내에서 시장성 있는 무역의 역할은 모든 순회 목사의 정체성에서 두드러진 구성 요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의 직업이나 무역은 그들에게 호일을 제공하여, 가톨릭 교회가 알려진 모든 발도파 지도자를 박해했던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로 여행하는 동안 비밀의 망토 아래에서 그들의 여행을 합법화했습니다. 세례는 개인의 구원에 효과적이고 필수적이었을까요? 두 그룹 모두 성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은 해소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남편과 아내는 불륜의 경우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상당한 단절이었고, 결혼이 성사가 아니라는 발덴스주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여섯 번째, 각 신앙 공동체는 부도덕한 행동에 관여하는 구성원에 대한 징계에 참여해야 하는가? 모든 신앙 공동체에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재판소는 사례별로 공동체 구성원을 다루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경은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난한 롬바르드족은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관행이나 믿음을 거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성경이 신앙과 도덕성에 대한 확실한 권위로서, 돌이킬 수 없는 참고 자료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즉 울트라몬타네스(Ultramontanes) 또는 산에서 온 사람들과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 즉 피에몬테세( Piedmontese) 사이에는 두 가지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첫 번째 논쟁은 월도와 그의 여행 동반자 비벳의 운명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월도와 비벳이 죽었을 때, 그들의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 죄를 고백하는 데 달려 있었는가? 피에몬테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트라몬테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만이 구원의 은사에 필요한 전부라고 믿었다.

두 번째 분쟁은 일곱 가지 성례의 집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왈도와 울트라몬타네스는 성례를 집행하는 사제가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않더라도 성례가 유효하다고 믿었지만, 피에몬테네스는 부도덕하거나 불의한 사제가 집행하는 성례는 사제의 더럽혀진 성격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연히도, 왈도스인 공동체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왈도스인들이 1532년 개혁 운동에 합류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218년 베르가모 공의회에서 두 집단은 이 마지막 두 가지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서 타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이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온의 가난한 사람들과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합쳐져서 두 신앙 표현의 강점을 종합하면서도 두 집단의 성실성을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왈도의 추종자들은 설교의 열정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중심 강조점으로 제시한 반면,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두 집단의 통합에 필요한 조직과 구조를 가져왔고, 그 덕분에 왈도파의 증언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1218년 베르가모 공의회 이후, 레온의 가난한 사람들과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합쳐져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로 더 포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두 가지 뚜렷한 기독교 신앙 표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과 봉사에 집중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 표현된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의 목회적 돌봄과 교육을 중심 사명으로 삼은 그리스도교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은 제도적 교회를 지원하고 일곱 가지 성례를 집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은 신앙 증인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제도적 로마 교회는 권력과 매우 발달된 설득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조작, 강압, 비난을 통해 발도파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유일한 참된 교회가 있고 발도파는 이단이라고 믿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 재판, 종교적 십자군, 도미니코회의 설교를 통해 가톨릭 교회가 신의 정의의 중재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발도파 이단자로 낙인찍힌 개인에게 재산 손실, 고문, 사망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발도파 운동은 점점 더 내향적으로 돌아섰습니다.

14세기 초에 발도파의 반대 세력은 비밀 조직으로 변해 개인과 추종자 모두의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비밀을 고수했습니다. 본질적으로 13세기 초에 발도파는 평신도가 제도적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교회의 발전을 장려했고,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저항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던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계와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시작한 이러한 변화의 완전한 영향이 기독교와 우리가 개신교 개혁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300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것은 왈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목적의 종합, 아놀드주의자들입니다.